

† 찬미예수님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독서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

## 2017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남북통일 기원 미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9ㄴ-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9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주임신부 이야기

오늘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빵 두봉지의 사랑]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빵 가게를 개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열장에 놓여 있는 빵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고, 손님이 많은 날은 입가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열 살배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맛있게 만들어진 빵을 두 봉지 챙겨 학교 가는 딸아이에게 간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따끈한 빵을 진열대로 하나둘 옮겨놓다가

금방 딸이 놓고 간 준비물을 발견하곤 뒤를 쫓았습니다.

멀리서 딸을 본 그는 딸의 행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편의점 주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빵 두 봉지를 드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받은 할머니는 딸아이를 보고 익숙한 듯

고맙다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동안 매일 아침 아빠에게 간식으로 받은 빵 두 봉지를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멀리서 딸의 행동을 지켜본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딸아이가 가져갈 두 봉지의 빵과 함께

할머니께 드릴 빵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남을 위한 관심의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배려심이 자라고 행동이 나오며,  
습관이 되고 참된 인생이 됩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일만큼 행복하고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 멋진 대열에 합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 2017년 6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오늘 (6/21) 생일을 맞이한 김종식 요한 형제님, 생일 축하합니다!

### <지난행사>

#### 장익 가밀로 형제님의 찜닭 점심 제공(6/18)

장 익 가밀로 형제님께서 하모니를 위해 매운탕에 이어 두번째 요리 찜닭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맛있는 닭요리로 몸보신까지 하였으니, 불끈 솟는 기운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에 참여합시다!  
집밥 백선생의 뒤를 이을 사랑방 장선생의 일품 요리, 정말 고맙습니다!

#### 주보 나눔 봉사 (6/18)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6/22 목)

금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6/22 목 오후 4시(시작) - 7시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 영어미사 (6/25 주일)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네번째 영어 미사가 오는 주일 4시에 있습니다.

오후 3시 부터 성가연습이 있겠으며, 미사 참여 시 영어 이름표를 꼭 착용해 주세요.

#### 주보 나눔 봉사 (6/25 주일)

김광찬 바오로 형제님, 감사합니다!

#### 가톨릭 성서 모임 가족 일일교육 (일시변경)

7/2일 예정이었던 성서 모임 가족 일일교육이 8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추후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 헬프 데스크 (7월 시작 예정)

예전부터 언급됐던, 어르신들께 영문편지 내용을 알려드리는 등 당일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헬프 데스크 봉사를 하모니,  
뜨락회와 다른 단체들이 돌아가며 매 주일 교중미사 후 약 1시간씩 봉사합니다. 7월을 시작으로, 하모니 2명의 봉사자가 매달 한  
번씩 봉사하게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회장단에게 알려주세요.

## 관심 영적도서 및 자료 구입

교우분들이 정성스레 모아주신 소중한 견기행사 후원금으로 우리 청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되는 교육자료를 마련하려 합니다. 구입된 자료는 앞으로 성당 사랑방에 비치, 함께 관람/공유하고, 대여도 하는 등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도서, 영상물 등 자료에 대한 의견, 또는 구체적인 도서명/자료명 등을 보내 주시면 이를 참고해서, 신부님과 상의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 성당 웹사이트 하모니 공지 링크

사목회에서 하모니 공지를 성당 웹사이트에 링크로 올려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모니 공지가 유익하다 하여 관심있게 눈여겨 보시던 사목회 분들과 신부님께서 결정하신 제안으로 우리의 활동 사항과 공지 내용이 다른 교우분과도 공유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모니 공지와 활동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신부님과 사목회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심 데레사 자매님 점심식사 초대 (7/8 토)

하모니에 많은 관심과 후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심 데레사 자매님께서, 댁으로 점심식사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초대 일시는 7월 8일 토요일 오후 12시경입니다. 시간되는 님들은 6월말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장소(오클랜드)는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 북가주 성령대회 (8/12 토)

북가주 6개 성당이 함께하는 성령대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아, 최 주임 신부님의 지도아래 오클랜드 성당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큰 행사에 우리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 봉사할 계획입니다. 말씀, 기쁨, 축복이 가득한 성령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당에서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대회는 오전 8:30-오후 8:30까지이며, 성령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은 일정 중간중간에 봉사하고, 그 외의 분들은 가능한 시간대에 봉사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안내 등의 봉사를 예상하고 있으니 8/12 토요일날 시간을 살짝 비워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8월말/9월초 시작)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시작이 8월말/9월초로 연기되면서 앞으로 한두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것의 기본이되는 말씀을 함께 접하고 나누며 배울 수 있는 감사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하계 수련회 일정 (9월 중 2박 3 일)

성당 행사/영어미사 제외, 신부님 일정 확인 후, 하계 수련회 날짜를 9/8(금)-9/10(일), 또는 9/15(금)-9/1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날짜 비워주세요.

## 도서실 봉사자 모집

성당에서 아침 8시 미사 후 30분동안, 또는 11시 교중미사 전 30분동안 도서실 (교육관 2층, 하모니 회합실 건너방)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의향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님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